남구 "정월 대보름 고싸움놀이 축제 초대합니다"

3~5일 테마파크 일원서 열려
불꽃놀이·무형문화재 공연 등

"제40회 정월 대보름 고싸움놀이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광주 남구 칠석동 고싸움놀이 테마파크에서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고싸움놀이 축제가 펼쳐진다.

1일 남구에 따르면 국가무형문화재 고싸움놀이 축제가 2월의 문을 연다.

남구와 고싸움놀이 보존회는 우리나라의 대표 민속놀이인 고싸움놀이의 계승·발전을 위해 코로나19를 비롯해 구제역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해를 제외하고 매년 정월 대보름 시기에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로 40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축제는 다채로운 볼거리로 채워진다.

우선 첫날인 3일에는 연을 만들어 날리는 체험 활동을 비롯해 기억 속에서 잊히고 있는 △고누 대회 △전국 5인 줄다리기 대회 예선전 △전통 연희놀이인 버나 놀이 △사자탈춤 △큰 깃발 놀이 △설장고 △소고춤 무대 등이 펼쳐진다.

이튿날 오전에는 초청 공연 무대로 국가무형문화재인 통영 오광대놀이와 줄타기, 판소리가 펼쳐지며 탭 댄스 및 춤추는 별주부전 등 퓨전국악 공연을 선보인다.

또 같은 날 오후 6시부터는 전통문화연구회 얼쑤의 모둠 북과 신명 나는 사물놀이 공연을 시작으로 △월드뮤직 그룹 루트머지 무대 △조선 판타지 우승자인 국악인 김산옥씨 무대 △파이어 댄싱 △달집태우기 △불꽃놀이 △당산제 등이 연달아 이어진다.

축제 마지막 날이자 정월 대보름인 5일에는 △퓨전국악 태평한 소리 무대 △광주시 무형문화재 제18호인 가야금 병창 황승옥씨 무대 △대구시 무형문화재 제2호 날뫼북춤 △국가무형문화재 북청사자놀음 무대가 펼쳐진다.

더불어 고싸움놀이 축제의 하이라이트로 300여 명의 고멜꾼과 줄잡이들이 남도의 강인한 기상을 선보이는 고싸움놀이 시연 무대가 이어지며, 축제장 주변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나홀로 서커스와 버블 팡팡, 샌드아트 등 다채로운 체험 한마당이 진행된다.

남구 관계자는 "고싸움놀이를 비롯해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무대를 준비했다"며 "제40회 고싸움놀이 축제 현장에서 2월 첫 번째 주말을 흥겹게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

북구 '적자 마을버스' 노선 조정 검토

기존 788·799번 노선 조정안 모색
협의 거쳐 올 8월께 운행노선 확정

광주 북구는 연료비 급등과 이용 수요 부족 등으로 경영난 위기에 처한 지역 내 마을버스에 대한 근본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1일 북구에 따르면, 북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지역 내 마을버스 3개 노선 중 최근 1년 사이 신설한 2개 노선 조정·대체 노선 발굴 관련 조사에 나섰다.

노선 운영업체 측이 차량 연료비(LPG 가스) 폭등,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승객 감소 등을 이유로 회사 재정이 어렵다며 손실액 지원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노선 조정 검토 대상은 788번(총 18.4㎞·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시화문화마을문화관), 799번(총 22㎞·살레시오고~김대중컨벤션센터역)이다.

788번 노선은 지난 2021년 12월31일부터 버스 9대가, 799번은 지난해 3월2일부터 버스 6대로 운행 중이다.

북구는 구비 1170만원을 들여 최근 신설된 788·799번 2개 노선에 대해 △승객 만족도 조사 △승객 수 △시간대·정류장별 승하차·환승인원 △민원사항 분석 등을 객관적 조사·분석하고 있다.

기존 노선 확정 당시 반영된 대중교통에 대한 이용 접근성이 떨어지는 교통약자 편의 제공 등 정성 지표도 충분히 감안한다.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최적의 노선 조정·대체노선 확보안과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한다. 시·구와 운영업체 간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올 8월 788·799 마을버스 노선 조정안이 확정된다.

북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연료비 급등으로 업체의 적자 폭이 해마다 커지고 있다"며 "업체가 지난해 또다시 마을버스 3개 전 노선에 대한 손실 지원을 요청했고 운행 중단 위기까지 우려돼 근본 해법을 찾기로 했다.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마을버스 운영과 교통약자 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고 밝혔다.

정성현 기자

全南日報
전남일보 인스타그램 @jnilbo
광주사람들 인스타그램 @peopleofgwangju
스낵뉴스 인스타그램 @hiphot_snacknews

서구, 주민자치 위탁사무 협약식 광주 서구(청장 김이강)는 지난달 31일 구청 나눔홀에서 상무1동 주민자치회(회장 장성우)와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주민이 마을의 실정을 수행할 수 있는 사무 위탁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광주 서구 제공

광산구 '정월 대보름 행사' 개최

4일 쌍암공원 등서 세시풍속 재현

광주 광산구는 오는 4일 첨단 쌍암공원 등지에서 2023년 정월 대보름 세시풍속 및 민속축제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광산구가 주최하고 굿마당 남도문화연구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오후 5시 길놀이로 막을 올린다.

첨단 응암공원과 쌍암공원에서 당산제를 지내며 풍물놀이, 정월 대보름 굿 등 우리 고유의 다양한 세시풍속을 재현할 예정이다.

이날 민속축제 백미는 달집태우기로, 달집은 쌍암공원에서 오후 8시30분에 불을 밝힐 예정이다.

광산구는 행사가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광산소방서·광산경찰 등과 협력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현옥 굿마당 남도문화연구회장은 "지역 번영, 시민 건강과 행복을 염원하는 풍성한 대보름행사가 되도록 준비와 진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광산구는 오는 4일 2023년 정월 대보름 세시풍속 및 민속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광주 광산구 제공

이와 함께 운남동 자연마을, 옥동경기장, 하남동 지실마을 등지에서도 3~5일 정월대보름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김상철 기자